

日帝强占期 殉國 絶命詩의 意味와 轉變

朴 東 昱

(漢陽大 創意融合教育院 副教授)

要約 및 抄錄

1910년 8월 29일 國權을 喪失한 庚戌國恥 이후 全國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를 따른다는 의미의 自靖殉國이 줄을 이었다. 이는 나라를 잃은 知識人이 할 수 있는 가장 強力하고 極端的인 抵抗의 方式이었다. 1910년대 말까지 抗日 自靖殉國者는 90여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죽음에 임해 絶命詩를 남겼다.

일제강점기에 유독 절명시에 대한 次韻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대에 지어진 유명한 절명시나 순절한 애국지사의 절명시가 그 대상이었다. 당시 절명시가 널리 읽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면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연구자들 중에도 당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殉國을 선택했던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했고 이들의 목소리 또한 많이 희미해졌지만 남은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있다.

※ 核心語: 日帝强占期, 絶命詩, 殉國, 自決, 抗日, 愛國志士

1. 서론

東北 아시아의 秩序는 急激하게 再編되고 있다. 현실적인 利害打算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離合集散을 거듭하는 중이고, 韓中日 三國의 不幸한 過去는 아직도 現在進行形에 있다. 挺身隊나 南京大屠殺 등 뚜렷한 歷史的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實體를 가진 事件에 있어서도 日本은 謝罪를 하기는커녕 역사 歪曲에 餘念이 없다.

1910년 8월 國權被奪로 大韓帝國이 滅亡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년간 식민통치 시기인 日帝強占期를 겪었다. 이때 민족의 정기와 정통성은 심각하게 毀損되었고, 그 후 南北은 분단되었으며, 이념적으로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親日清算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그 害惡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國權을 喪失한 庚戌國恥 이후 全國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를 따른다는 의미의 自靖殉國이 줄을 이었다. 이는 나라를 잃은 知識人이 할 수 있는 가장 強力하고 極端的인 抵抗의 方式인 셈이다. 1910년대 말까지 抗日 自靖殉國者는 90여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죽음에 임해 絶命詩를 남겼다.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시를, 絶命詩, 絶筆詩, 臨命詩, 臨刑詩, 辭世詩, 畢命詩, 自挽詩라고 한다. 병으로 인해 回復이 불가능할 때나, 스스로 殉節을 결심하며 결행하기 전,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되기 전에 쓴 작품들로, 모두 죽음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전하는 마지막 傳言인 셈이다.¹⁾

日帝強占期 많은 지식인들이 變節을 통해 一身의 安慰와 榮達을 꿈꾸었다. 그들은 解放 후에 어떠한 抵抗도 없이 다시금 社會의 要職을 독차지했다. 반면 抗日愛國志士들은 祖國의 獨立을 위해 草芥처럼 목숨을 바치거나, 초라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어땠을까?

2. 순국 절명시의 現況과 創作背景

한말, 일제하에서 순국한 사람들의 절명시는 많이 남아 있다. 독립 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거나, 더 이상 조국의 현실을 되돌릴 수 없

1) 줄고(2015), 「절명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p.502 참고

는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를 지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金道鉉(1852~1914)²⁾, 金衡植(1877~1950)³⁾, 白樂寬(1846~1883)⁴⁾, 朴尙鎮(1884~1921)⁵⁾, 沈南一(1871~1910)⁶⁾, 劉秉憲(1842~1917)⁷⁾, 李康季(1858~1908)⁸⁾, 李晚燾(1842~1910)⁹⁾, 李殷瓚(1878~1909)¹⁰⁾, 全海山(1878~1910)¹¹⁾, 鄭煥直(1843~1907)¹²⁾, 趙泳善(1879~1932)¹³⁾, 趙愚植(1869~1937)¹⁴⁾, 許蕙(1854~1908)¹⁵⁾ 등이 있다. 『기려수필』에서도 金根培(1847~1910)¹⁶⁾, 金舜欽(1840~1910)¹⁷⁾, 吳剛杓(1848~1910)¹⁸⁾, 李麟榮(1867~1909)¹⁹⁾ 등의 절명시를 찾아볼 수 있다.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수집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
- 2) 金道鉉, 「絶命詩」: 我生五百末 赤血滿腔腸 中間十九歲 鬢髮老秋霜 國亡淚未已 親沒痛更張 獨立故山碧 百計無一方 欲觀萬里海 七日當復陽 白自千丈水 足吾一身藏
 - 3) 金衡植, 「絶命詩」: 此山應有仙 肉眼不分看 白髮聳雲間 人謂我神仙
 - 4) 白樂寬, 「絶命詩」: 今年今日離兄弟 何代何時見後裔 嗟我一身蟬蛻去 衆生陷溺有誰濟
 - 5) 朴尙鎮, 「絶命詩」: 母葬未成 君讐未復 國土未復 死何面目
 - 6) 沈南一, 「訣故國江山」: 文明日月此江山 忽入腥塵暗暖間 未親一晴歸地下 千秋化碧血痕斑
 - 7) 劉秉憲, 「絶命詞」: [1] 九年塵雨裏 三入楚囚中 夢渡桑乾水 魂飛柴市風 [2] 漢祚終難復 燕樓死亦甘 此心誰可識 對影聽鷄三 [3] 寧爲湯鑊死 不作犬羊臣 嗟乎我死後 埋骨首陽隣
 - 8) 李康季, 「絶命詩」: 五十年來判死心 臨難豈有苟求心 盟師再出終難復 地下猶餘冒劍心
 - 9) 李晚燾, 「九月初二日夜口占」: [1] 胸中葷血盡 此心更虛明 明日生羽翰 逍遙上玉京 [2] 閣瘦茅簷坐 川淙夜深深 萬理雖未淨 寧順自安心
 - 10) 李殷瓚, 「臨絶詩」: 一枝李樹作爲船 欲濟蒼生泊海邊 未得寸功身先溺 誰算東洋樂萬年
 - 11) 全海山, 「絶命詩」: [1] 書生誤着戰征衣 太息空因素志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2] 白日吞聲江水逝 青天咽淚雨絲飛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鶯帶血歸
 - 12) 鄭煥直, 「絶命詩」: 身亡心不變 義重死猶輕 後事憑誰託 無言坐五更
 - 13) 趙泳善, 「臨刑」: 聖門問答事 日月乾坤輝 我爲綱常計 悠然含笑歸
 - 14) 趙愚植, 「臨刑時吟」: [1] 此日是何日 丈夫判死生 春秋無地讀 涕淚自然橫 [2] 此筵難再得 重死不重生 含笑回頭見 滿天戟月橫
 - 15) 許蕙, 「絶命詩」: 湖南三月李花飛 報國書生解鉄衣 小鳥何知時事急 終霄勸我不如歸
 - 16) 金根培, 「絶命詩」: 若洗讎金到老身 欲兼生義末由因 與其生也寧從義 清潔吾家井有仁
 - 17) 金舜欽, [1] 萬古扶綱常 夷齊乃得眞 捐生義不食 夙夜仰斯人 [2] 何顧人非是 只明義不義 無論生與死 自信適於志 [3] 痛哭群蠻亂我東 何時快見八垓同 義師蕩掃倭酋日 家祭無忘告乃翁
 - 18) 吳剛杓가 「絶命詞」를 썼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19) 李麟榮: 分明日月懸中州 四海風潮濫○流 蚌鶴緣何相持久 西洲應見漁人收
 - 20) 줄고(2015), 「절명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제57집, 한국한문학회, pp.508~509 참고.

이 당시에 절명시에 대한 次韻詩가急增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시기의 저명한 절명시를 차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정순국한 이들의 절명시에 대한 차운시가 상당수 남아 있다. 당시에 자정순국한 이들의 절명시가 널리 읽혀졌으며, 그들의 義氣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차운시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순국 절명시는 죽음이 자발적 선택인 경우가 많아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를 남기게 된다. 李晚燾(1842~1910)는 순국 절명시의 그런 전형을 잘 보여준다. 1895년(당시 54세) 明成皇后가 살해되는 乙未倭變이 발생하자, 日月山 廣德 墳菴으로 들어가 통곡했다. 1905년(64세) 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아들 李中業을 통해 「請斬五賊疏」를 올렸으나 비답을 얻지 못한다. 이에 부친의 무덤 아래에서 생매장을 당해도 싸다고 하면서 거친 밥과 해진 옷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1910년(69세) 음력 8월 1일 산속에 있던 그에게 西坡 柳必永과 權載勳이 찾아와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부모의 무덤을 찾아가 14일 동안 통곡을 하고 음력 8월 14일부터 재종손 綱鎬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斷食을 시작했다. 단식의 과정 중에 3題 5首의 시를 남겼다.²¹⁾ 表題에는 絶命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절명시라 볼 수 있다.

나 자신 속인 데다 남 속였더니
하늘 보고 땅 보자 겁나는구나
그런데도 아직 목숨 붙어 있나니
역할 못한 저승사자 어디에 쓰라
내가 현인 달자께 바라노라니
이 산골짜기에 다신 오지들 마소
自欺而欺人 畏天又畏地
尙貰一縷息 彼哉閻羅吏
惟願諸賢達 無復枉窮谷

21) 「庚戌八月二十日夜口占 絶食已七日」, 「九月初二日夜口占」, 「初三日勝客位」

「구월 초삼일에 객위에다 방을 걸다 음식을 먹지 않은 이후로 원근에 사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병든 목숨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어 한갓 남들만 고생시키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몹시 깊었다. 이에 드디어 이 시를 지어서 손님을 사절하였다.[初三日勝客位 自絶食以來 遠近親戚知舊 逐日來問 而病纒尙延 徒勞苦人 歉媿殊深 遂書此以謝]」²²⁾

단식을 시작하고 7일이 지난 8월 20일의 시를 보면 亡國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짙게 드러난다.²³⁾ 단식 20일 후 9월 2일의 시에는 분노나 절망을 대신해서 생사의 경계마저 훌쩍 넘은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 육체적인 괴로움이 정신적인 해방으로 치환되는 순간이다.²⁴⁾ 위의 시는 생애 마지막 순간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썼다. 이미 죽음을 예견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의 방문도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세상이나 삶에 대한 탄식과 원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천지를 향한 畏敬이 자리 잡았다. 이만도의 『靑邱日記』에도 망국의 소식을 접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24일간의 단식 순국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²⁵⁾

3. 순국 절명시의 주제

3-1 뜻을 이루지 못한 회한

어머님의 장례는 못 마쳤고,
우리 임금 원수도 갚지 못했네.

22)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고하여 필자가 보완하였다.

23) 「庚戌八月二十日夜口占 絶食已七日」: [1] 舉目山河異 籲天那復階 却慚匹夫諒 無計報涓埃 [2] 我雖無所學 所學驗於今 後人宜勉勵 本分更欽欽

24) 「九月初二日夜口占」: [1] 胸中輩血盡 此心更虛明 明日生羽翰 逍遙上玉京 [2] 閣瘦茅簷坐 川淙夜深深 萬理雖未淨 寧順自安心

25) 광진(2010), 「響山 李晩壽의 自尊의 삶과 殉國」, <민족문화> 제36집, 한국고전번역원. 이 논문에는 순절에 이르는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나라의 땅도 찾지 못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 가나.
 母葬未成 君讐未復
 國土未復 死何面目

다시는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
 다행스레 장부 몸 얻었지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 하니
 푸른 산 조롱하고 녹수가 비웃누나.
 難復生此世上 幸得爲男子身
 無一成功去 青山嘲綠水嘔

- 朴尙鎮, 「絶命詩」

朴尙鎮(1884~1921)²⁶⁾은 본관이 密陽, 호는 固軒이다. 1915년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여 친일 부호 여러 명을 처단한다. 이 일로 인해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탄로되어 1918년 봄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선생은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8월 13일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의병장 許薦(1855~1908)의 제자이며, 김좌진과 義兄弟이기도 하다.²⁷⁾

1921년 8월 11일 대구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하루 전과 사형 당일에 쓴 작품이다. 4언절구와 6언절구로 각각 죽음을 앞둔 절박한 심정을 격정적으로 써내려갔다. 어머님의 장례는 못 마쳤고, 나라를 잃은 임금의 복수도 하지 못했으며,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抗日 투쟁을 계속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깔려 있다.

26) 朴永錫(1986), 「大韓光復會研究 - 朴尙鎮祭文을 中心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朴中焄(2001), 「固軒 朴尙鎮의 生涯와 抗日鬪爭活動」, <국학연구> 6집, 국학연구소; 권대웅(2010), 「朴尙鎮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연구> 28집, 한국동학학회. 이 밖에도 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27) 「哭朴義士尙鎮氏」: [1] 男兒生世事多難 奮義殉身極所難 雜不爲難難極處 公於此世更無難 [2] 結義桃園二十年 知公毅節衆難肩 邦讐未雪身先死 可奈英靈恨徹天 [3] 吾東自有博浪椎 撲盡狐難度不遲 地下未知含笑否 西風腸斷慰靈詞

죽는데도 마음은 변치 않으며,
 의로움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네.
 뒷일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말없이 새벽까지 앉아 있노라.
 身亡心不變 義重死猶輕
 後事憑誰託 無言坐五更

- 鄭煥直, 「絶命詩」

鄭煥直(1843~1907)은 본관은 迎日이며, 초명은 致右, 자는 左兼, 호를 愚石이라 하였으나, 1900년 고종이 하사한 이름과 字號로 개명하여 이름을 煥直, 자를 伯溫, 호를 東巖이라 했다. 맏아들 鄭鏞基(1862~1907)가 1907년 근대 해산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전사하자 남은 의병을 모아 흥해·영덕 등지에서 여러 차례 큰 전과를 올렸으나, 東大山에서 체포되어 영천에서 1907년 11월 16일에 총살당했다.

순국 절명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臨刑詩가 많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임형시를 남긴 사람은 權鞞, 金昌集, 成三問, 趙光祖 등에 불과하다. 반면 순국 절명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형시가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봉건시대와 근대의 사법제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절명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자신의 召命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만 채워 넣었다.

조선왕조 마지막에 태어나서는
 붉은 피 온 간장에 가득 찼구나
 그 사이 19년 동안 해마다 보니
 머리털 희어져 서릿발이 되었네.
 나라 잃고 흘린 눈물 그대로인데,
 부모마저 가시니 슬픈 맘 더욱 쉼네.
 나 홀로 고향 산에 우뚝 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네.

저 멀리 바닷길 보고자 했더니
 7일이 양을 회복하는 동지이네.
 희디 흰 천 길 되는 저 물속이
 내 한 몸 간직하기 꼭 알맞겠네.

我生五百末 赤血滿腔腸
 中間十九歲 鬚髮老秋霜
 國亡淚未已 親沒痛更張
 獨立故山碧 百計無一方
 欲觀萬里海 七日當復陽
 白白千丈水 足吾一身藏

- 金道鉉, 「絕命詩」

김도현(1852~1914)은 한말의 항일 의병장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영남의 선비들과 더불어 상경, 을사조약반대 상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 순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지의 만류로 실패하고 귀향하였다. 1914년 11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영해의 觀魚臺에 나아가 유서와 절명시를 남기고 바다에 투신, 자살하였다. 저서인 『碧山先生 倡義顛末』은 당시 자신의 의병활동 기록과 각지의 의병항쟁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한말 의병활동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지식인은 투쟁과 순절의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었다. 무력 투쟁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법이었고 순절은 일제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는 표현이었다. 어느 선택이 다른 선택에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순절은 모든 시도를 다하고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택한 방식이다.

수많은 자결의 방식이 있었지만, 그가 택한 것은 蹈海殉國이었다. 도해²⁸⁾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는다는 말로 고결한 지조를 지킨다는 뜻이다. 그런 방식을 택한 경우는 고려시대 金濟(?~?) 정도 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드

28) 중국 春秋時代 秦나라 군사가 趙나라의 邯鄲을 에워싸자, 魏나라 임금이 客將軍 新垣衍을 시켜 平原君을 통하여 진나라 昭王을 황제로 삼고자 청하게 하였는데, 齊나라의 魯仲連이 마침 조나라에 왔다가 이 말을 듣고 평원군을 통하여 신원연을 만나 ‘그가 방자하게 황제가 된다면 나는 東海로 들어가 죽을 따름이다.’ 하였다는 故事에서 나온다.

라마틱한 죽음인 셈이다.

통상 절명시는 절구나 단편으로 구성되며, 연작시는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 죽음과 근거리에 위치할수록 시의 호흡 단위는 짧아지기 마련이다. 반면 이 시는 5언 12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강렬한 시간을 보냈다는 반증도 된다. 8구의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다[百計無一方]”는 절절한 탄식에 그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그대로 들어가 목숨을 끊었다.

자의든 타의든 더 이상 투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뜻을 이루지 못한 회한을 드러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아쉬움이 주를 이룬다. 하나의 신념이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뛰어 넘은 셈이다.

3-2 결사투쟁(決死鬪爭)에 대한 다짐

[1]

선비가 전투복 잘못 입게 되었다가,
 헛되이 간히어서 평소 뜻 어김 탄식하네.
 조정의 신하가 재앙 만들 통곡하노니,
 바다 밖 敵이 쳐들어와 포위함 어찌 논하랴.
 書生誤着戰征衣 太息空因素志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2]

밝은 해도 소리 죽이고 강물은 흘러가고,
 푸른 하늘 눈물 흘리는지 빗줄기 가늘게 흘날리네.
 이제부터 영산으로 가는 길 이별하지만,
 죽어서 두견새 되어 핏빛 띠고 돌아오리.
 白日吞聲江水逝 青天咽淚雨絲飛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鵲帶血歸²⁹⁾

29) 제목이 전하지 않는다.

全垂鏞(1879~1910)은 조선 후기 의병장으로 大東倡義團과 湖南同義團을 결성하여 일본군에 맞서 투쟁했다. 1909년 12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영산포 일군 헌병 분견대에 갇혔다. 1910년 6월 3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대구 감옥소로 옮겨졌다가 1910년 7월 18일 처형되었다.

자신을 취조하는 헌병에게 이 시를 신문에 게재해 달라 요청하여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황성신문에도 실렸다.³⁰⁾ [1] 유자로서 군복을 입고 전투를 해야 하는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나마 그 뜻을 다 이루지도 못하게 수감된 것을 한탄스러워하면서, 나라를 침탈한 왜놈들뿐만 아니라 매국한 관리들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2] 전반적으로 쓸쓸한 기조를 띠고 있지만 죽어서라도 다시 조국 산천에 돌아오고픈 바람을 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 또는 지향하는 이념이 좌절이나 실패로 돌아가 불우하게 삶을 마칠 경우, 시의 내용은 대부분 국가나 군주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채워진다.³¹⁾

오십 평생 죽기를 다짐했던 이 마음,
이제 와 구차하게 살기를 구하겠나.
다시 군사 일으켜도 끝내 나라 찾지 못했지만,
지하에도 남아 있을 빛나는 칼날 같은 이 마음.
五十年來判死心 到今寧有苟生心
盟師再出終難復 地下猶存昌劍心

- 李康季, 「絕命詩」

30) 皇城新聞, 1910년 02월 03일, 전해산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영산포 분견소의 헌병에게 체포되어서 현재 광주 지방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전해산은 광주로 오기 전에 영산포의 파견된 헌병에게 기록한 절구시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절필시 절구이니 신문에 게재하여 세상에 공표하시오”라고 했다고 일본에서 간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있었다. [全海山絕筆 向者에 全南榮山浦分遣所憲兵에게 逮捕되어 目今光州地方裁判所에서 審理를 受호는 全海山은 光州로 來到호기 前에 榮山浦分遣隊憲兵에게 左記호 絕句를 與호야 曰此는 我絶筆絶句니 新聞에 揭載호야 世間에 公表호라호았다고 日人某報에 揭載호았더라]

31) 줄고(2015), pp.517~518 참고.

이강년(1858~1908)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문경의 동학군을 지휘, 일본군과 탐관오리를 무찔렀고, 1895년 乙未倭變 때는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어 堤川으로 柳麟錫을 찾아가 師弟의 의를 맺고, 유인석 의병부대의 유격장으로서 문경·鳥嶺 등지에서 활약했다. 이후 淸風의 錦繡山에서 체포되어 사형 당했다.

위의 시는 1908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쓴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지만 의기만은 여전하다. 다만 조국을 되찾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만,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라를 위해 抗戰을 계속하려는 뜻은 끝내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유한한 인간의 삶이란 허무함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공적인 가치가 무조건 사적인 가치에 앞서는 않지만, 왜소한 개인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익을 위한 선택에 있다. 죽음이 불가역적인 상황임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투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숭고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3-3 담담히 죽음에 맞서며

나라가 패망한 지 이미 몇 년 되었는데,
 실낱 목숨 여전하니 하늘에 부끄럽네.
 장부가 돌아갈 곳 아는 듯 여기노니,
 은(殷)나라엔 백이숙제, 제(濟)나라엔 전횡(田橫) 있었네.
 國家破亡已有年 尚存一縷愧蒼天
 丈夫自比知歸所 殷有夷齊齊有田

- 崔世允, 「絶命詩」

崔世允(1867~1916)은 단발령사건에 반대하여 1896년 의병 400명을 규합, 安東 의병장 金道和의 휘하에서 싸우다 해산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켜 永川에서 싸웠다. 1908년 의병장이 되어 淸河·靑松·영천·義城 등지에서 항쟁하다 밀정의 밀고로 체포되어 대구 지방법원에

서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단식투쟁 끝에 세상을 떴다. 아들 山斗 역시 옥중에서 순사했다. 패망한 나라에서 온전히 목숨을 붙이고 있는 것조차 욕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 자신이 지향하는 인물인 伯夷와 叔齊, 田橫을 들어, 망국의 신하로서 절의를 지키다 죽을 것을 다짐했다.³²⁾

[1]

구 년 동안 먼지 비가 내리는 속에
세 차례나 초나라 죄수 되었네.
꿈속에서 桑乾³³⁾의 물 건넌 일이 있었으니
혼령은 柴市³⁴⁾의 바람에 날리누나.
九年塵雨裏 三入楚囚中
夢渡桑乾水 魂飛柴市風

[2]

漢의 복조 끝내 회복키 어려우니,
연루에서 죽어도 달게 여기네.
이 같은 굳은 마음 뉘 알 수 있으랴.
그림자 대해 닭소리 세 홑 소리 듣네.
漢祚終難復 燕樓死亦甘
此心誰可識 對影聽鷄三

[3]

차라리 끓는 솥에서 죽을지언정,
견양의 신하가 되지 않으리.
아! 내가 죽은 뒤에
뼈를 수양산 이웃에다 묻어다오.

32) 참고(2015), pp.509~510 참고

33) 桑乾: 지금의 北京 남쪽에 있는 永定河이다.

34) 柴市: 文天祥이 1276년 수도 臨安이 함락된 뒤 勤王軍을 일으켜 元나라에 대항하다가 1278년에 사로잡혀 柴市에서 처형되었다.

寧爲湯鑊死 不作犬羊臣

嗟乎我死後 埋骨首陽隣

- 劉秉憲, 「절명사, 무오 7월 19일에 대구의 옥중에서 짓다[絶命詞 三首 戊午 七月十九日 大邱獄中作]

劉秉憲(1842~1918)은 본관이 江陵, 자는 周顯, 호는 晩松이다. 1918년 그의 양조장 경영에 대한 세금납부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 투옥되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투옥된 지 7개월 만에 단식을 결행, 순국했다. 저서로는 『만송유고』를 남겼다.

위의 시는 7월 19일 대구감옥에서 지은 절명시다. 시에서 언급되었듯 그는 실제로 9년 동안 3번이나 옥고를 치렀다.³⁵⁾ 그는 죽음의 순간에 다름 아닌 文天祥을 떠올린다. 문천상은 송나라(남송)가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다 체포되었는데, 쿠빌라이칸이 그의 재능을 아껴 몽고에 전향하기를 권유했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 인물이다. 시의 마지막에서는 白受繪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적의 우두머리가 백수회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고 하자, 백수회는 도리어 적장을 꾸짖고 죽음을 무릅쓰며 저항하기를 “차라리 죽어서 이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犬羊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寧爲李氏鬼 不作犬羊臣)”라 했다는 구절을 차용하였다. 마지막에서는 왜놈들의 신하가 되기보다는 首陽山에서 고사를 캐어 먹다 굶어 죽은 伯夷와 叔齊처럼 살다 죽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그는 단식으로 삶을 마쳤다.

4. 절명시 次韻의 유행과 그 의미

동해의 저 배야 노중련 나루터 어디더냐

오백년 고려조의 초개 같은 신하로다.

35) 1911년에는 한일합방에 반대하는 불온한 언론을 유포한 이유로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월형을 받았고, 1912년에는 토지 조사법에 의한 측량을 거부하다 금고 5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18년에는 면허 없이 술 4되를 담그고, 약목 헌병 파견소와 철곡 군청에 일제 멸망을 예언하는 詩句를 보내어 또다시 체포되었다.

외로운 나의 영혼 죽지 않고 있다면
 붉은 해 따라가서 증원 땅 비추리라.³⁶⁾
 呼船東問魯連津 五百年今一介臣
 可使孤魂能不死 願隨紅日照中垠

- 金濟, 「絕命詩」

金濟(?~?)는 본관은 善山, 호는 白巖이다. 고려에서 平海郡守로 있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이름을 齊海라 바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벽에다 시 한 수를 써놓고 바다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正祖는 김제와 김주를 고죽국의 백이·숙제의 충절에 비유하면서 바다에 단을 세워 초혼제를 치르게 하였으며, 안동의 孤竹書院에 배향했다.

이 시는 일종의 절명시로 볼 수 있는데, 郡壁詩, 壁上詩, 絕命詩, 蹈海詩 등 다양한 제목으로 전해진다. 널리 회자되며 여러 문인들에게 언급되었으니,³⁷⁾ 자결의 방식으로 蹈海를 택했다는 점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생토록 충과 효 간직했지만
 오늘날 어느 누가 알아주겠나.
 한 번 죽음 무엇을 한하라마는
 하늘이야 응당 알아줌 있으리라.
 平生忠孝意 今日有誰知
 一死吾休恨 九原應有知

- 金自粹, 「絕命詞」

36) 中垠: 중은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공양왕이 계시는 구천지체를 비추리라.”가 있다.
 37) 郭鍾錫, 「蹈海碑 用原韻」과 張錫蠹, 「金白巖濟蹈海詩」가 남아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는데 참고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李家煥, 「題金白巖遺後」; 陸萬中, 「讀金白巖浮海詩」, 「白巖金忠介公蹈海實紀序」; 申體仁, 「敬次金白巖平海壁上韻」, 「白巖金先生傳」; 蔡濟恭, 「敬題白巖金先生 遺詩後」; 洪奭周, 「題白巖先生蹈海實記」; 丁範祖, 「題白巖金公遺詩後」

金自粹(1351~1413)는 본관은 慶州, 초명은 子粹, 자는 純仲, 호는 桑村이다. 조선 건국 후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絶命詩를 남기고 자결하여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李崇仁·鄭夢周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지금도 안동시 안기동에 유허비가 남아 있다.

김자수의 만시에 대한 차운시와 黃喜가 지은 김자수의 만시³⁸⁾에 대한 차운시가 일제강점기에 특히 많이 창작되었는데, 周時範(1883~1932), 裴文昶(1864~1928), 盧正勳(1853~1929), 魚在源(1866~1930), 田珪鎭(1870~1928)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³⁹⁾

[1]

긴 강이 험함 잃어 내성이 비었으니,
궁전 속 비린 먼지 더러운 공기 속에 이네.
御眞이 길에서 방황할 일 차마 말하라.
울음 삼킨 촌 노인들 눈물 가슴 적시우네.
長江失險內城空 宮殿腥塵穢氣中
忍說御眞播越路 吞聲野老淚沾胸

[2]

남문에 순절한 김공이란 분 있었으니
바른 의리는 우리나라 조선을 지켜왔네.
오늘밤 맑은 날씨 하늘의 뜻 있어서,
빛나는 별과 달이 내 마음 비취 주네.
南門殉節有金公 正義扶持我大東
今夜清明天有意 昭森星月照丹衷

38) 有忠有孝難 有孝有忠難 二者既云得 況又殺身難

39) 周時範, 「讀金桑村自粹臨命詩 及黃龍村挽語 感而步其韻」; 裴文昶, 「謹次金桑村絶命詩韻」; 盧正勳, 「謹次金桑村先生絶命韻」, 「謹次黃龍村先生挽桑村韻」; 魚在源, 「謹次桑村金先生絶命詩」, 「謹次黃厓村挽金桑村詩」; 田珪鎭, 「次桑村金先生臨命吟及黃龍村挽先生詩二韻」

[3]

한 사람 죽는 것이 백만 군사보다 나왔으니
 萊城에서 왜놈들 송공 이름 두려워했네.
 몸이 사나운 귀신 되어 능히 적을 섬멸할 것이니,
 변변찮은 칠 척의 몸 가벼이 했다 말하지 말라.
 一死勝於百萬兵 萊城倭懼宋公名
 身爲厲鬼能殲賊 莫道鴻毛七尺輕

[4]

禮樂을 숭상했던 河間獻王 같은 積德公이여
 후손들이 감히 오랜 가풍을 실추하라.
 綱常이란 두 글자를 붙들기 위하여,
 형제가 조용하게 손잡고 함께 갔네.
 禮樂河間積德公 後孫敢墜古家風
 綱常二字扶而去 兄弟從容携手同
 - 李是遠, 「성이 함락된 뒤에 짓다. 병인년 9월이다[城陷後作 丙寅九月],

이시원(1790~1866)⁴⁰⁾의 「城陷後作 丙寅九月」은 『羅巖隨錄』에는 제목이 「絕命詩」로 나온다. 이 시는 1866년 프랑스 군대에 강화도가 함락되어 御眞이 播遷하는 것을 보고서 형제가 함께 殉節을 결심하고 지은 것이다. 결국 9월 18일 아우 李止遠과 함께 遺疏를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이때의 정황은 宋相燾의 『騎驢隨筆』에도 나온다.⁴¹⁾ 앞에서는 金尙容, 宋象賢, 李厚生 등의 행적을 밝힌 후, 뒤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고 실행에 앞서 마음을 다잡는 데 힘을 썼다.⁴²⁾ 형제가 함께 자결을 택한 사실은 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40) 이시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용태(2006)

41) 졸고(2015), pp.511~512 참고

42) 이 사람은 회갑 날 13수의 자만시를 남긴 바 있다. 한 작가가 절명시와 자만시를 동시에 남겨 놓아, 두 시의 특성을 비교하기에 좋다. 「回甲日, 然翁四從兄, 寄一絕曰, 少年豈識老年懷, 辦酒應權醉甲回. 君子終身皆此日, 莫將淒淚落稱盃. 其日心懷不佳, 骨肉切已

에 충분했다. 여러 문인들이 이 시에 차운시를 남기거나 그들 형제에 대한 만시를 썼다.⁴³⁾

열사들 비통하게 생각하는 이 때에
 저 하늘은 어찌하여 나라 망하게 하시고
 일생동안 남쪽 음악 연주 변치 아니했는데
 백번 죽어도 나라 걱정 어찌 잊겠는가
 저옥이 오늘 신민(臣民)의 의로움 생각해보니
 온 세상에 이 몸 용납하기 어렵네
 은나라 백이 속제는 어디로 갔는가
 내 산문(山門)을 서쪽으로 내고 숨어 살리라.

霜膽偏悲烈士秋 彼蒼胡忍陸沈州
 一生不變南音操 百死那忘北望憂
 竊念臣民今日義 難容天地此身謀
 殷薇采采歌安適 西我山扉獨掩幽

- 崔宇淳, 「西扉詩」

최우순(1832~1911)은 조선 말기의 순국지사로 본관은全州이고 자는 舜

之觴, 皆受飲之, 遂沈醉竟夕, 夜枕, 用其韻, 口占抒感. 時因山纒過, 方戒筆硯, 而情甚悲苦, 語類痛哭. 盖取古人自挽之意, 忠恕之君子, 儻或覽而悲之, 族兄輝遠氏, 自號然翁, 湖西隱君子也」

- 43) 그에 대한 시들은 차운시와 만시가 남아 있다. 姜晉奎, 「輓砂礮李尙書是遠丈」, 『櫟菴集』; 南阜, 「丙寅九月 洋夷竊發 江都城陷時 李判書是遠 退老江都 年七十八 痛哭拜訣于家廟 草遺疏 勉君德 與其弟郡守志遠 飲藥自盡 有絶命詩四絶 讀之 令人感慨泣下 遂次其韻」, 『時庵集』; 閔在南, 「挽李判書是遠止遠兄弟」, 『晦亭集』; 朴時默, 「次沁都李判書是遠 兄弟殉節韻 四首」, 『雲岡集』; 李尙斗, 「謹次李判書 是遠 江都殉節韻二絶」, 『雙峯文集』; 李俔, 「洋艘犯江都 留守李寅夔棄城走 前判書李公是遠與其弟郡守 死之有遺詩 傳誦洛下 余聞而次之(四首)」, 『復菴私集』; 李最善, 「挽沙礮李尙書二首」, 『石田集』; 趙彥觀, 「洋夷之陷江都也 判書李公[是遠]年滿八耄 不能勤王 矢死報國 而臨絶封疏 自方於史魚之尸諫 與弟辦命 此無媿於西山之雙節 且曰死當爲厲鬼 以殲羣凶 而未幾 王師奏捷 全城收復 可謂千古奇偉之蹟也 感而作詩」, 『荷潭文集』; 河達弘, 「吊李尙書是遠二首 [丙寅九月日 洋賊陷江華府 時李公退老於本府 與其弟金浦郡守 從容就死於先塋之下]」, 『月村先生文集』. 또 다른 기록으로는 姜晉奎, 「書沙礮李忠貞公 殉節後」, 『櫟菴集』이 있고, 洪翰周의 일기인 『丙寅日史』 에도 이와 관련된 일이 상세히 나온다.

九이며 호는 西扉이다. 일본헌병이 회유하기 위하여 恩賜金을 전달하려 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음독자결하였다. 문집으로는 『西扉集』이 있다. 그는 을사년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될 때 여섯 충신이 죽었다⁴⁴⁾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弔喪하였다. 기유년(1909)에 황해도 출신 의사 안중근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⁴⁵⁾ 김택영이 그에 대한 傳인 「崔宇淳傳」을 지었고 曹兢燮이 그의 문집 서문인 「西扉遺稿序」를 지은 바 있다. 그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문인들이 차운시와 만시를 지었다.⁴⁶⁾

採薇子 金夷淸은 나와 같은 문하에서 공부한 선비이다. 맑은 수행을 힘써 배워 癸酉년 勒刺의 변에 絶命詩를 짓고 五十巖에서 몸을 던져서 뼈가 거의 다 부셔질 지경이었으나 목숨만 가까스로 붙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죽지 않게 되었지만 모습은 도깨비와 같았다. 하지만 의롭다는 명성에 가깝고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감동했다. 무릇 떳떳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라면 敬慕하여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44) 을사년에……죽었다 : 을사조약 강제 체결 후 閔泳煥이 자결한 데 이어 趙秉世, 趙萬植, 洪萬植, 平壤隊 梁登병 金奉學, 학부 주사 李相哲, 주영공사 李漢應 등이 있다. 이외에도 宋秉燾 등도 자결 순국하였다.

45) 송상도 저, 강원모 외 번역(2014), 『기려수필』, 문진.

46) 姜時馨, 「西扉子 固城人崔煥模爲其大人殉義事請賦此」, 『龔隱集』; 金秉宗, 「次崔西扉韻」, 『秀山文集』; 金麟洛, 「挽崔西扉舜九 字淳」, 『前川遺藁』; 朴漢植, 「次崔西扉絕筆詩」, 『西岡集』; 成煥孚, 「挽西扉崔丈字淳」, 『正谷遺稿』; 尹炳模, 「與崔西扉」, 『弦齋集』; 李道默, 「挽崔西扉」, 『南川集』; 李祥奎, 「次崔舜九西扉韻」, 『惠山集』; 李承熙, 「聞崔西扉舜九殉義事口吟志獻」, 『大溪先生文集』; 李之榮, 「挽固城崔西扉」, 『訥菴集』; 李宅煥, 「追次崔丈 字淳 西扉韻」, 『晦山先生文集』; 李鉉甲, 「挽崔西扉」, 『薇庵遺稿』; 李鉉郁, 「挽西扉崔公字淳」, 『謹次西扉遺詩韻』, 『東菴集』; 鄭奎榮, 「用崔西扉絕筆韻追挽二首」, 『韓齋集』; 趙昇奎, 「挽崔西扉」, 「次崔丈 字淳 西扉詞 二首」, 『一山先生文集』; 崔道燮, 「挽族兄西扉公 字淳」, 「贈衡汝 三絕」, 『聽江集』; 河經洛, 「挽崔西扉丈字淳」, 『濟南集』; 河龍濟, 「次崔西扉亭韻」, 『約軒文集』; 河憲鎮, 「挽崔西扉」, 『克齋先生遺集』; 許寧, 「挽崔西扉」, 『中溪遺藁』; 許在瓚, 「挽崔西扉」, 『緬懷西扉詞』, 『竹史集』. 차운시나 만시를 제외한 글도 많이 남아 있다. 權雲煥, 「讀崔西扉詩」, 『明湖文集』; 金麟洛, 「祭崔西扉丈文」, 『前川遺藁』; 李祥奎, 「祭崔西扉文」, 「與西扉崔舜九」, 『惠山集』; 趙昇奎, 「祭西扉崔公字淳文」, 『一山先生文集』; 崔道燮, 「祭族兄西扉公文」, 『聽江集』; 河謙鎮, 「西扉集跋」, 「西扉亭記」, 『晦峯先生遺書』

採薇子金夷清甫, 吾同門士也. 清修力學, 癸酉勒刺之變, 作絶命詩, 投五十巖下, 碎骨幾盡, 一息僅存. 被 人救護得, 不死而形若鬼狀, 義聲動遠邇. 凡有彝性者, 莫不欽仰歎賞.

尊攘大義明 존양하는 대의에 밝았으니,
身命鴻毛輕 목숨은 홍모같이 가볍게 여겼네.
偉矣朝聞道 위대하도다. 아침에 도를 들었으니,
求仁不苟生 어짐을 구했지 구차하게 살려 안했지.

薇山殘月明 미산에 새벽 달이 환히 비출 제
握髮投身輕 머리채 쥐고 가볍게 몸을 던졌네.
碎骨巖崖下 벼랑 아래 떨어져 뼈가 부서졌으나,
偶然幸得生 우연히도 다행히 목숨 구했네.

- 柳永善, 「次金採薇子柄老絶命詩 二首」

金柄老是 누구인지 상고할 수 없는 인물이며, 그의 절명시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단발령이 시행되자 절명시를 짓고는 오십암이란 곳에서 투신자살을 선택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 이야기에 감응된 바가 컸는지 宋炳燿(1875~1945), 鄭憲泰(1894~1974), 李普林(1903~1972) 등이 그에 관한 시를 남겼다.⁴⁷⁾

이 시는 柳永善(1893~1961)의 작품이다. 유영선의 본관은高興, 자는禧卿, 호는玄谷, 田愚의 문인이다. 김병로가 보여준 尊王攘夷의 大義를 찬양하고, 사건의 경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유영선은 金根培(1847~1910)의 죽음에도 「追次金公梅下根培絶命詞 公却金赴井死」를 짓기도 했다. 김근배는 1895년 斷髮令이 내려지자 이를 반대하여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1910년 국권피탈에 통분하여 우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김근배에 대한 이야기는 『기려수필』에 상세히 나온다.

47) 宋炳燿, 「次金夷清柄老絶命詞韻 并小序」; 鄭憲泰, 「和金夷清柄魯絶命詞」; 李普林, 「次金夷清柄老握髮絶命韻」

[1]

난리 속에 어느덧 백발의 나이 되었구나
 몇 번이고 죽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네
 오늘 참으로 어찌지 못할 상황 되니
 바람 앞 촛불만 밝게 하늘을 비추네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捐生却未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2]

요기가 자욱하여 황제의 별 옮겨 가니
 침침한 궁궐에는 낮이 더디 흐르네
 조칙은 앞으로 더 이상 없으리니
 종이 한 장 채우는 데 천 줄기 눈물이라
 妖氛晦翳帝星移 九闕沉沉晝漏遲
 詔勅從今無復有 琳琅一紙淚千絲

[3]

금수도 슬피 울고 산하도 쟁그리니
 무궁화 세상은 이미 망해 버렸다네
 가을 등불 아래서 책 덮고 회고해 보니
 인간 세상 식자 노릇 참으로 어렵구나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沉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4]

짧은 서까래만큼도 지탱한 공 없었으니
 살신성인 그뿐이지 충성은 아니라네⁴⁸⁾

48) 살신성인 …… 아니라네 : 『논어』「衛靈公」에, “지사와 인인은 살기 위하여 인을 해친 경우는 없고, 목숨을 버려 인을 이룬 경우는 있다.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殺身以成

결국 겨우 윤곡이나 따르고 마는 것을
 부끄럽네, 왜 그때 진동처럼 못했던고
 曾無支厦半椽功 只是成仁不是忠
 止竟僅能追尹穀 當時愧不躡陳東

- 황현, 「絶命詩 四首」

……純宗 隆熙 4년(1910) 7월에 日人이 마침내 한국을 합병하였다. 8월에 황현이 그 소식을 듣고는 몹시 비통해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저녁 「絶命詩」 4장을 짓고, 또 子弟들에게 글을 남겨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 한 사람도 國難에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면 참으로 통쾌함을 깨달을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하였다.

이 글을 다 쓰고는 바로 독약을 마셨는데, 그 다음 날에야 가족들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우 璉이 급히 달려가 보고는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황현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만 내가 써 놓은 글을 보면 알 것이다.” 하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죽는 일이란 쉽지는 않은가 보다. 독약을 마실 때에 세 번이나 입을 대었다 떼었다 하였으니,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었던 말이냐.” 하였다. 이윽고 운명하니 향년 56세였다. 일찍이 盧氏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항상 원에게 이르기를 “국난에 죽을 사람은 반드시 네 형일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金澤榮, 「本傳」

黃玹(1855~1910)은 9월 8일 절명시와 유서를 쓴 뒤 9일에 소주에 아편을 타서 마시고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순국한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힌다. 김택영의 傳에는 그가 맞은 죽음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는 4편의 절명시를 남겼다. [1]에서 순국에 대한 자신의 결심은 진작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지금에야 실행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여기에

[仁]”하였다.

서 촛불은 아주 위태롭고 미약한 자신의 양심을 가리킨다. [2]에서 妖氣는 매국노나 소인배를 말하고, 황제의 별은 紫微垣에 속하는 별로 황제를 지칭한다.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는 讓國詔書를 들고 이마저도 다시 없을 것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3]에는 亡國의 지식인이 느끼는 서러움과 무력감이 문면에 가득하다. [4] 亡國으로 치달을 때 막을 수는 없었고 다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충성은 아니었다고 자책했다. 끝내 한이 되는 일은 몽고 군대의 침략 때 불에 타서 자결한 宋나라 尹穀의 길만을 따랐을 뿐, 간신배들을 탄핵하다 참수당해 죽은 陳東의 길을 택하지 못한 일이었다.

황현의 죽음과 절명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당시 여러 문인들이 글을 남기기도 했으니, 金澤榮(1850~1927), 吳繼洙(1843~1915), 楊鍾樂(1870~1941), 許奎(1861~1931)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⁴⁹⁾

유독 일제 강점기에 절명시에 대한 차운시가 유행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할 만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죽음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가슴 깊이 애도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온 문집을 조사해보면 이러한 자료는 더욱더 많이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當時 知識人들은 國權의 喪失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망국의 신하이면서 망국의 同調者가 된 것 같은 무력감과 상실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殉國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총, 飲毒, 斷食, 投井, 割腹, 自剄, 自縊, 蹈海 등 자결의 방식도 참으로 다양했다.

그들은 처형이 결정되거나 순국의 결심이 섰을 때 절명시를 지었다. 조국의 光復을 보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면서도 그 공포를 뛰어넘어 결연히 그 길을 선택했고, 결사 항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49) 金澤榮, 「聞黃梅泉殉信作」; 吳繼洙, 「次黃梅泉玆絕筆詩 四首」; 楊鍾樂, 「讀黃梅泉玆絕命詞四絕」; 許奎, 「挽黃梅泉」 10수.

일제강점기에 유독 절명시에 대한 次韻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대에 지어진 유명한 절명시나 순절한 애국지사의 절명시가 그 대상이었다. 당시 절명시가 널리 읽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이순신 관련 한시가 많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한편으로는 죽음으로써 저항할 수 없기에 절명시를 짓거나 차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 같은 이가 다시 나타나 왜놈들을 물리쳐 주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創氏改名을 할 때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改名하고 號나 字를 바꾸었다. 더러운 세상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에 서였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면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연구자들 중에도 당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殉國을 선택했던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했고 이들의 목소리 또한 많이 희미해졌지만 남은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곽 진(2010), 「響山 李晚燾의 自尊의 삶과 殉國」, <민족문화> 제36집, 한국고전번역원.
- 권대웅(2010), 「朴尙鎭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연구> 28집, 한국동학학회.
- 박동욱(2015), 「절명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pp.508~518.
- 박영석(1986), 「大韓光復會研究 -朴尙鎭祭文을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박중훈(2001), 「固軒 朴尙鎭의 生涯와 抗日鬪爭活動」, <국학연구> 6집, 국학연구소.

절명시 목록 1. 원운시

인물	작품	문집	비고
김근배 (金根培, 1847~1910)	「絶命詩」		『기려수필』에 나옴.
김도현 (金道鉉, 1852~1914)	「絶命詩」		
김순흠 (金舜欽, 1840~1910)	「無題」		『기려수필』에 나옴.
김양진 (金養鎭, 1829~1901)	「丙戌至月十一日 哭柳鞏甫櫬行 歸見手書在案 乃臨化絶筆 披閱三復 投淚書此」	『愚軒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김윤식 (金允植, 1835~1922)	「西湖統監示春畝詩一截 卽絶筆也 要次韻和之 將送本家藏之」	『雲養集』	
김형식 (金衡植, 1877~1950)	「絶命詩」		
남고 (南皐, 1807~1879)	「丙寅九月 洋夷竊發 江都城陷時 李判書是遠 退老江都年 七十八痛 哭拜訣于家廟 草遺疏 勉君德 與其弟郡守志遠 飲藥自盡 有絶命詩四絶 讀之令人 感慨泣下 遂次其韻」	『時庵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노정훈 (盧正勳, 1853~1929)	「謹次金桑村先生絶命韻」 「謹次黃龍村先生挽桑村韻」	『鷹樵遺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박상진 (朴尙鎭, 1884~1921)	「絶命詩」		
박한식 (朴漢植)	「次崔西扉字淳絶筆詩」	『西岡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배문창 (裴文昶, 1864~1928)	「謹次金桑村絶命詩韻」 「次金夷淸柄老絶命詞韻 并小序」	『定山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백낙관 (白樂寬, 1846~1883)	「絶命詩」	『秋江先生 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심남일 (沈南一, 1871~1910)	「訣故國江山」		
양종락 (楊鍾樂, 1870~1941)	「讀黃梅泉炫絶命詞四絶」	『裕齋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어재원 (魚在源, 1866~1930)	「謹次桑村金先生絶命詩」 「謹次黃厓村挽金桑村詩」	『蒙軒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오강표 (吳剛杓, 1848~1910)	「絶命詞」		『기려수필』 에 나옴. 제목만 나오고,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오계수 (吳繼洙, 1843~1915)	「此黃梅泉玆絶筆詩 四首」	『難窩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유명헌 (劉秉憲, 1842~1918)	「絶命詞 三首」		
유영선 (柳永善, 1893~1961)	「追次金公梅下根培絶命 詞 公却金赴井死」	『玄谷先生 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강년 (李康年, 1858~1908)	「絶命詩」		
이만도 (李晩燾, 1842~1910)	「九月初二日夜口占」		
이보림 (李普林, 1903~1972)	「次金夷淸柄老握髮絶命韻」 「和梅竹堂臨刑呼韻」	『月軒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설 (李偈, 1850~1906)	「此三泉絶筆韻」	『復菴私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은찬 (李殷瓚, 1878~1909)	「臨絶詩」		
이인영 (李麟榮, 1867~1909)	「無題」		『기려수필』에 나옴.
전규진 (田珪鎭, 1870~1928)	「次桑村金先生臨命吟及 黃龍村挽先生詩二韻」	『松溪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전수용 (全垂鏞, 1878~1910)	「絶命詩」		황성신문(皇城新 聞) 1910년 02월 03일에 기재됨.
정헌태 (鄭憲泰, 1894~1974)	「和金夷淸柄魯絶命詞」	『荷堂私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정환직 (鄭煥直, 1843~1907)	「絶命詩」		
조영선 (趙泳善, 1879~1932)	「臨刑」	『拜軒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조우식 (趙愚植, 1869~1937)	「臨刑時吟」		
주시범 (周時範, 1883~1932)	「讀金桑村自粹臨命詩 及黃龍村挽語 感而步其韻」	『守齋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최세운 (崔世允, 1867~1916)	「絶命詩」		
허위 (許蕙, 1854~1908)	「絶命詩」		

절명시 목록 2. 차운시 및 관런시

인물	작품	문집	비고
강시형 (姜時馨, ?~?)	「西扉子 固城人崔煥模爲其大人 殉義事請賦此」	『叢隱集』	남명학교문헌 시스템
곽중석 (郭鍾錫, 1846~1919)	「蹈海碑 用原韻」	『侑宇文集』	
김병중 (金秉宗, 1871~1931)	「次崔西扉韻」	『秀山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남고 (南阜, 1807~1879)	「丙寅九月 洋夷竊發 江都城陷時 李判書是遠 退老江都 年七十八 痛哭拜訣于家廟 草遺疏 勉君德 與其弟郡守志遠 飲藥自盡 有絶命詩四絶 讀之 令人感慨泣下 遂次其韻」	『時庵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노정훈 (盧正勳, ?~?)	「謹次金桑村先生絶命韻」 「謹次黃厓村先生挽桑村韻」	『鷹樵遺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박시묵 (朴時默, 1814~1879)	「次沁都李判書 是遠 兄弟殉節韻 四首」	『雲岡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박한식 (朴漢植, 1860~1930)	「次崔西扉絶筆詩」	『西岡集』	한국역대문집총서
배문창 (裴文昶, 1864~1928)	「謹次金桑村絶命詩韻」	『定山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송병관 (宋炳權, 1875~1945)	「次金夷淸柄老絶命詞韻 并小序」	『克齋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어재원 (魚在源, 1866~1930)	「謹次桑村金先生絶命詩」 「謹次黃厓村挽金桑村詩」	『蒙軒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보림 (李普林, 1903~1972)	「次金夷淸柄老握髮絶命韻」	『月軒集』	

이상규 (李祥奎, 1847~1923)	「次崔舜九西扉韻」	『惠山集』	남명학교문헌 시스템
이상두 (李尙斗, 1814~1882)	「謹次李判書 是遠 江都殉節韻二絶」	『雙峯文集』	남명학교문헌 시스템
이설 (李偈, 1850~1906)	「洋艘犯江都 留守李寅夔棄城走 前判書李公是遠與其弟 郡守 死之有遺詩 傳誦洛下 余聞而次之(四首)」	『復菴私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승희 (李承熙, 1847~1916)	「聞崔西扉舜九殉義事口 吟志戲」	『大溪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이택환 (李宅煥, 1854~1924)	「追次崔丈 宇淳 西扉韻」	『晦山先生文集』	남명학교문헌 시스템
이현옥 (李鉉郁, 1879~1948)	「挽西扉崔公宇淳」 「謹次西扉遺詩韻」	『東菴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장석신 (張錫燾, 1841~1923)	「金白巖濟蹈海詩」	『果齋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전규진 (田珪鎭, 1870~1928)	「次桑村金先生臨命吟及 黃龍村挽先生詩 二韻」	『松溪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정규영 (鄭奎榮, 1860~1921)	「用崔西扉絕筆韻追挽二首」	『韓齋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정헌태 (鄭憲泰, 1894~1974)	「和金夷清柄魯絕命詞」	『荷堂私稿』	한국역대문집총서
조병규 (趙昞奎, 1846~1931)	「挽崔西扉」 「次崔丈 宇淳 西扉詞 二首」	『一山先生文集』	남명학교문헌 시스템
조인관 (趙彦觀, 1805~1870)	「洋夷之陷江都也 判書李公[是遠]年滿八耋 不能勤王 矢死報國 而臨絕封疏」	『荷潭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p>自方於史魚之尸諫 與弟辦命 此無媿於西山之雙節 且曰死當爲厲鬼 以殲羣凶 而未幾 王師奏捷 全城收復 可謂千古奇偉之蹟也 感而作詩」</p>		
<p>주시범 (周時範, 1883~1932)</p>	<p>「讀金桑村自粹臨命詩 及黃龍村挽語 感而步其韻」</p>	『守齋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p>최도섭(崔道燮, 1868~1933)</p>	<p>「挽族兄西扉公 字淳」 「贈衡汝 三絶」</p>	『聽江集』	한국역대문집총서
<p>하용제(河龍濟, ?~?)</p>	<p>「次崔西扉亭韻」</p>	『約軒文集』	남명학고문헌 시스템

■ ABSTRACT

Meaning and Variableness of Patriotic Death Poem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ak, Dong-uk

There were numerous patriotic deaths for self-purification for expressing the wills to follow the country's fate by taking own life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e national humiliation losing the sovereignty on Aug. 29, 1910. At the time, the intellectuals couldn't help watching the loss of sovereignty. They might feel tremendous sense of helplessness and loss as the people of ruined country as if they became the sympathizer of the collapse of the country. They couldn't help making the extreme selection that was patriotic death.

Such people wrote the patriotic death poems when they determined the patriotic death or the execution was determined. Even though they faced the death with the sadness which they couldn't see the liberation of their country, they resolutely selected the death beyond the fear on death and enhanced their resolution on the desperate resistance. Furthermore, it is remarkable that the patriotic death poems borrowed the rhyming words from other poems especiall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ose poems borrowed the rhyming words from the famous patriotic death poems written in the previous period or those written by patriots dying for the country.

When a number of people changed their names into Japanese names for success in their life, those who wrote patriotic death poems changed their pen names or nick names after changing their names into Japanese names. It was a positive resistance to the filthy world. A number of patriots selected death as throwing their life away like a grass.

※ key-words: Death Poems, Patriotic Death, Suicide, Resistance to Japan, Patriots